

 국토교통부		보도자료		
		배포일시	2020.5.21(목) / 총6매(본문6)	
담당부서	공공택지기획과	담당자	• 과장 김승범, 사무관 하태아, 주무관 유경석	
	광역교통정책과		• ☎ (044) 201-4505, 4526, 3356	
			• 과장 손덕환, 사무관 김인규, 주무관 양은혜	
			• ☎ (044) 201-5045, 5056, 5057	
보도일시		2020년 05월 22일(금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5월 21일(목) 14:00 이후 보도 가능		

하남교산 신도시, 과천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

- 지하철 환승센터 등을 통해 서울 도심 30분내 접근 가능한 교통대책 완비 -

-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는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(위원장 최기주) 심의(‘20.5.8)를 거쳐 하남교산 3기 신도시(3만 2천호)와 과천지구(7천호)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하였다.
-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신도시 조성 및 신규 교통대책 추진에 따른 교통량 변화 등에 대한 교통전문기관 용역, 한국교통연구원(KOTI) 검증, 지방자치단체 협의,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었다.
- 3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잠실·강남 등 서울 도심까지 30분내 출퇴근이 가능하도록 지하철 등 대중교통 투자를 확대하고, 지구지정부터 대책확정까지 15개월 이상 소요되던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다. 사업추진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사업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준공을 도모하였다.
- 또한, 지하철 개통 전 입주 초기에 입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가 광역버스 운행비용 등을 지원토록 하였다.
 - 한편, 계획 수립 중인 고양창릉 등 4개 신도시(왕숙·계양·창릉·대장)도 연내 대광위 심의를 통해 광역교통개선대책을 확정할 수 있도록 각 지구별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다.

1.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

◆ 송파-하남 도시철도 등 20개 사업에 총 2조 원 투자 계획 수립



대중교통 확충

- 가 송파~하남간도시철도건설 12km/15,401억원
- 나 BRT 신설 및 지구내 가로변 버스전용차로 설치 2km/30억원
- 다 동남로 연결도로 BRT 설치(편도) 2.6km/173억원
- 라 교산지구 환승시설 20억원
- 마 중앙보훈병원역 환승시설 120억원
- 바 하남드림휴게소 환승시설
- 사 대중교통운영지원 및 화차공간 확보 100억원

도로교통 개선

- 1 객신타널~국도43호선 1km/391억원
- 2 서울~양평고속도로 부분확장 4.7km/천억원
- 3 신팔당대교 1.7km
- 4 서하남로 확장 1.4km/395억원
- 5 동남로 연결도로 2.6km/766억원
- 6 황산~초이간도로 2.1km/560억원
- 7 국도43호선 도로확장 및개선 5.4km/321억원
- 8 천현로 교량확장 0.1km/58억원
- 9 감일지구~고골간도로 1.8km/347억원
- 10 동남로 확장 및개선 3.7km/638억원
- 11 서하남IC 입구 교차로 부분확장 0.2km/55억원
- 12 위례성대로 TSM 7억원
- 13 초이IC 북방향 연결로 35억원

*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, 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과정에서 확정 예정

□ 하남교산지구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핵심사업은 하남에서 송파구 등 서울 주요 도시권을 연결하는 송파~하남 간 도시철도^㉔로 2028년까지 완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.

- 또한, 대중교통을 이용해 하남-서울 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동남로 연결도로에 버스전용차로^㉔를 설치하고 천호~하남 BRT를 지구 내 환승거점까지 도입하여 지구 내 버스전용차로와 연계운영^㉔ 할 예정이다.
- 특히, BRT 정류장과 철도역사 인근에 환승시설^㉔을 설치하여 광역버스 - 지선버스 및 버스 - 철도 - PM(개인형이동수단) 등 다양한 이동수단들 간의 편리한 환승서비스를 제공한다.
- 또한, 서울 중앙보훈병원역(9호선)^㉔에도 환승시설을 설치하여 대중교통 이용도를 높이고, 지구 북측의 하남드림휴게소^㉔에는 고속·광역·시외 ↔ 시내버스 간 환승이 가능한 종합 환승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.

□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 교통개선 부분은,

-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까지 아우르는 치유형 교통개선대책을 위해 국도43호선을 확장·개선^㉔하고 황산~초이간 도로^㉔ 및 감일~고골 간 도로^㉔를 신설하여 지역 간 연계성을 강화하였으며,
- 인접 고속도로와의 원활한 접속을 위해 사업지구와 국도43호선 연결도로를 신설^㉔하고, 서울~양평고속도로*를 부분 확장^㉔하는 한편, 초이IC 북측 연결로^㉔를 신설할 계획이다.

* 재정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는 연내 완료, '28년 개통(서울~상사창)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

- 또한, 서울방면 교통수요를 분산하고자 동남로 연결도로^㉔를 신설하고, 교통유입에 따른 도로용량 확보를 위해 동남로 확장(5~6차로→6~8차로) 및 개선^㉔, 서하남로 부분확장^㉔, 위례성대로 교통체계개선(신호체계 개선 및 차로조정 등)^㉔을 시행할 계획이다.

2. 과천시 광역교통개선대책

◆ 위례~과천선 연장 등 10개 사업에 총 7,400억 원 투자 계획 수립



대중 교통 확충	가 GTX-C 정부과천청사역 환승역사	도로 교통 개선	1 청계산지하차도~영곡C도로구조개선 0.8km/810억원
	나 위례과천선(북정역~정부과천청사역) 20km/4000억원		2 과천~우면산간도시고속화도로지하화 0.35km/950억원
	다 안양~사당 BRT 11.2km / 220억원		3 과천대로~현릉로 연결도로 0.94km/394억원
	라 과천지구 환승시설 700억원		4 이수~과천 간 복합터널 5.4km/100억원
	마 대중교통운영지원 20억원		5 상아벌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 234억원

*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본계획, 설계 등 후속절차 추진 과정에서 확정 예정

- 과천지구의 경우 선바위역·경마공원역(4호선) 등 기존 교통시설과 연계하여 서울·경기지역의 접근성을 보다 높일 수 있도록 **철도·BRT·환승센터** 등 10개 사업이 포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였다.
- 대중교통 확충 부분 중 철도사업은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경마공원역까지만 반영되어 있는 위례~과천선(북정역~경마공원역)을 **정부과천청사역**까지 연장^㉔하는 것으로, 이 사업은 예타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.
 - 또한, 서울 사당역과 안양을 연결하는 **BRT^㉕**를 설치하고, 과천지구 **환승시설^㉖**을 설치하여 과천지구에서 서울 강남 및 수도권 남부(수원, 안양 등)로의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도록 하였다.
 - 아울러, 철도사업 개통 전까지 입주민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광역버스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^㉗등을 반영하였다.
- 광역교통개선대책의 도로교통 개선부분은,
 - 상습 정체해소 및 통과교통량 분산을 위해 과천~우면산 간 도시고속화도로를 지하화(상아별지하차도~선암IC)^㉘하고, 상아별 지하차도 확장 및 통합(4차로→6차로)^㉙ 사업을 계획하였다.
 - 또한, 동서방향의 주 도로인 양재대로의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과천대로~현릉로 연결도로(과천대로~청계산로~현릉로)^㉚ 신설과 청계산 지하차도~염곡IC 도로구조개선^㉛사업도 추진한다.
 - 아울러, 과천대로 등 남북축 도로여건 개선을 위해 민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‘이수~과천 간 복합터널^㉜’, 사업에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여건을 개선하였다.

④ 민자사업으로 '19년 민자적격성조사 완료, '26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 중

3. 기대효과 및 추진계획

□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시행되면,

- 하남교산지구는 기존 잠실방면 50분, 강남역 65분 가량 소요되던 통행시간이 잠실 20분, 강남역 30분으로 단축되고 동남로, 서하남로 등 기존도로의 교통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.
- 과천지구는 철도·버스 대중교통시설을 통해 서울 강남 등 주요 도심까지 2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지고, 과천대로(서울시계~관문사거리) 양재대로 구간의 교통혼잡이 개선될 것이다.

□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 이후,

- 사업시행에 장기간 소요되는 도시철도는 5월 중 국토교통부, 서울시, 경기도, 하남시, LH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시행 및 운영 방식 등 세부사항을 조속히 논의하고, '21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승인, 실시계획착수 등을 거쳐 '23년 착공, '28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.
- 현재 先 발주하여 진행 중인 동남로 연결도로 설계용역 이외 나머지 도로분야 개선대책도 '20년 상반기 중 관련용역을 발주하여 조속히 착수할 계획이다.

□ 국토교통부 김승범 공공택지기획과장은 “하남교산·과천과천 지구의 광역교통개선대책 확정을 시작으로, 나머지 4개 신도시(왕숙·계양·창릉·대장)도 연말까지 교통대책을 순차적으로 확정해 나갈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공공택지기획과 하태아 사무관(☎4526), 광역교통정책과 김인규 사무관(☎5056)에게 문의 바랍니다.